

도내 경제계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 앞장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취지 공감

강원 중소기업계가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나선다.

도내 협동조합 이사장들의 모임인 강원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는 2일 오전 11시 춘천의 산토리니에서 회의를 열고 도에서 추진하는 강원상품권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한다.

이사장협의회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원상품권 발행 및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도내 경제단체를 하나로 통합, 지난달 출범한 강원경제단체연합회도 오는 14일 출범 이후 첫 이사회를 열고 강원상품권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강원소기업소상공인회도 도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강원상품권 정

작을 위해 회원들이 나서기로 했다.

앞서 도내 중소기업단체 15개로 구성된 강원중소기업단체연합회도 지난달 30일 원주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강원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은 “강원상품권 이용 장려 캠페인이나 업무협약 체결 등 불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건설사 체감경기 ‘공공’... 1월이후 최저

11월 CBSI 76.1, 전달보다 4.6p 하락

건설사들이 느끼는 11월 건설시장 체감경기가 올 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전달보다 4.6포인트 하락한 76.1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올 들어 1월(73.5)을 제외한 최저치다.

이흥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장은 “주택 및 비주거 건축수주 지수가 떨어지면서 CBSI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11·3 부동산대책, 미국 대선 결과와 최근 시중금리 인상 등이 전반적으로 건축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형·중견기업 지수가 전달보다 하락했다. 특히 지난 7월 이후 4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0을 유지했던 대형기업 지수

(84.6)가 전달보다 큰 폭(15.4포인트)으로 떨어져 하락세를 주도했다.

중견업체는 3.0포인트 하락한 75.8을 기록, 8월부터 4개월 연속 70선 중후반대로 부진을 거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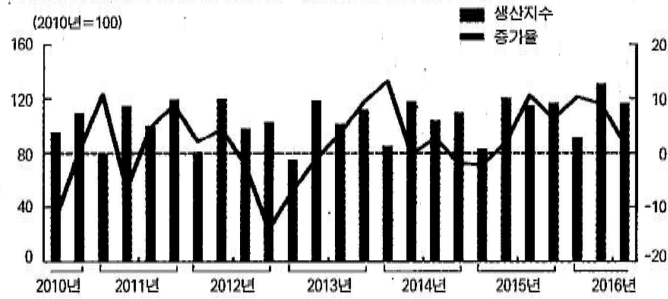
중소업체는 6.3포인트 상승한 66.7을 기록, 최근 4개월 동안 가장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신규 공사수주는 △토목공사(11.4포인트 상승) △주택(1.6포인트 하락) △비주거건축(4.1포인트 하락)으로 나타났다. 건축부문 부진이 CBSI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는 지방소재 기업이 전달보다 6.7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서울소재 기업은 12.1포인트 하락했다.

12월은 11월 실적보다 1.1포인트 높은 77.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흥일 실장은 “연말 공공공사 물량이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으로 11월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강원지역 시멘트 생산 및 증가율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



영동권 시멘트 생산 증가세 대폭 꺾였다

(2분기 9.0%→3분기 1.6%)

철도파업으로 운송 지장 출하 어려워져 생산 감축

강원 영동지역 시멘트 생산의 증가세가 올 3분기 들어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분양 호조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철도파업이 시멘트 생산 증가 확대를 막았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따르면 올 3분기 강원 영동지역 시멘트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분기 증가율(9.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택분양 활황 등으로 강원 영동지역 시멘트 생산은 작년 3분기부터 10% 안팎의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철도파업이 이 흐름을 꺾었다. 강원 영동지역에서 생산된 시멘트는 대부분 철도로 운송하는데, 철도파업으로 3분기 시멘트 출하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으며, 재고는 같은 기간 2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준모 한은 강릉본부 과장은 “철도파업에 따라 시멘트 운송에 지장이 생기면서 시멘트 업체들이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생산을 일부 줄였다”

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 강릉본부는 4분기 시멘트 생산 증가율이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분양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주택사업장들의 시멘트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봤다.

권준모 과장은 “시멘트가 투입되는 골조공사는 착공시점으로부터 보통 3~16개월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철도파업이 장기화되면 4분기 생산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4분기 시멘트 생산 증가 회복으로 시멘트 업체들의 수익성도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판매 손실과 대체 육로운송수단(벌크트레일러) 비용 부담 등을 반영하면 큰 폭의 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시멘트의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치솟고 있어, 이 점이 시멘트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55.2달러였던 유연탄 1t의 가격(호주산 기준)이 지난달 말 103.2달러로 급등했다. 약 3개월 새 2배 가까이 뛴 셈이다.

최남영기자 hnews@

강원도 추진 고속도로 정부계획서 빠졌다

공사비 등 경제성 평가 낮은 점수 도 “주말 관광수요 등 반영해야”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건설 사업 대부분이 정부의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오기 때문인데 관광객 수요가 몰리는 주말 통행량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와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4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통해 2014년 기준 4139km인 고속도로 연장을 2020년까지 5131km로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포함한 신규 고속도로 4곳과 계속사업 9곳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도내 고속도로 사업은 동흥천~양양 고속도로(71.7km) 뿐이다.

2020년까지 계획된 도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남북 축 3개 노선과 동서 축 2개 노선 등 총 5개의 고속도로 계획이 수립돼 있다.

남북 축은 춘천~철원, 속초~고성, 삼척~포항 구간이다. 동서 축은 도 경계에서 화천을 지나 간성으로 연결되는 구간과 제천~삼척 구간이다.

하지만 이들 노선은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도의 도로 건설이 국가 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낮은 경제성이 꼽힌다.

도내 도로 건설 사업은 노선이 지나가는 주변지역의 도시와 시군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교통수요 유발 효과가 작다. 반면 산악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 탓에 건설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소요된다. 사업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이유로 도의 도로 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태다. 현재 도의 고속도로 총 연장은 349km로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3.5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족한 사업성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광 수요가 많은 도의 특성상 평일 교통수요보다는 주말 수요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 주말 관광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발연은 “도는 평일 교통량보다 주말 교통량의 비중이 약 1.2배 이상 높다”면서 “주말 관광수요로 인한 통행비중이 큰 만큼 타당성 분석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로법 개정으로 국토부의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각 고속도로의 사업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말 완료될 예정인 국토부 계획에 도내 고속도로 사업을 반영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강발연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자체들이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에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